

현대중국어 상 표지로의 문법화 조건*

- 존재동사와 이동동사를 중심으로

崔圭鉢**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존재동사
3. 이동동사
4. 상 표지로의 문법화 조건
5. 맺음말

1. 들어가는 글

현대 중국어에는 각기 다른 문법화 단계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상 표지 (aspect marker)들이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문법화 수준을 보이는 ‘-了’, ‘-着’, ‘-過₂’, ‘在-’와 같은 관점상(viewpoint aspect) 표지 이외에도 ‘-起來’, ‘-完’, ‘-好’, ‘-過₁’ 등과 같은 동상보어(動相補語, phasal verb complement, 이하 약칭 PVC)들이 넓은 의미에서 상적 기능(aspectual function)을 하는 표지로 간주될 수 있다. 상 표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 PVC도 포함시켜볼 때 우리는 한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대개 완성, 소유,

* 이 논문은 2010년도 고려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고려대 중문과 교수.

존재,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들로부터 문법화를 거쳐 기능어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중국어만이 갖는 개별적 특징이 아니어서 언어유형학 연구자들은 상 표지로 발전해가는 동사들이 대부분 완성, 소유, 존재, 이동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완성, 소유, 존재, 이동 의미를 갖추기만 하면 어떤 동사는 문법화를 거쳐 상 표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령 'V+了_{상표지}' 형식의 전신이던 'V+PVC' 형식에 사용되던 여러 가지 PVC들, 예를 들어 '著', '訖', '却' 등이나 또 그 이전 시기의 'V+완성동사' 형식에 사용되었던 '竟', '畢', '訖', '已' 등의 완성동사들 가운데 나머지는 다 도태되고 오직 '了'만이 관점상 표지로 선택되었다.(梅祖麟 1999)

또한 관점상 표지 가운데 '在'와 '着'는 공히 존재 의미를 가지는 동사이며, 위치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着'의 경우 결과와 완성 의미를 나타내는 PVC로의 기능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주요동사 뒤에 부가되어 단독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등 전형적 미완료상과는 거리가 있다.

이동동사에서 온 경험상 표지 '-過'와 기시상 표지 '-起來'의 경우 전자는 관점상 표지가 되었으나 후자의 경우 PVC에 더 가까운 특징을 보인다. 또 '-過來'나 '-過去'는 '-起來'와 마찬가지로 복합방향동사 형식에서 왔으나 완전한 PVC로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중국어의 존재동사, 이동동사를 중심으로 하여, 상 표지로 문법화 된 동사들과 상 표지가 되지 못한 여타 동사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상 표지로서의 문법화 조건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2. 존재동사

2.1 은유의 관점에서 본 존재동사의 문법화¹⁾

존재동사가 진행상으로 문법화되는 예는 영어, 한국어, 중국어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으며, 언어 보편적 현상이다. 먼저 영어의 경우를 보자.

- (1) John is on/at/a- hunting. (Vlach 1981)
 존은 사냥을 하고 있다.

영어의 진행형은 초기 'be+전치사+-ing'의 형식에서 전치사가 탈락하면서 현재의 진행형 형식을 이루게 되었다.

한국어의 진행상 형식인 '-고₁ 있다'를 구성하는 보조동사 '있다'도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에서 왔다.

- (2) a. 영희가 도서관에 있다.
 b. 영희가 책을 읽고₁ 있다.

'-고₂ 있다', '-어 있다'는 결과 지속 상태를 나타내는데, 역시 동일한 동사 '있다'에서 온 것이다.

- (3) a. 영희가 (머리에) 편을 꽂고 있다.
 b. 예쁜 꽃이 꽃병에 꽂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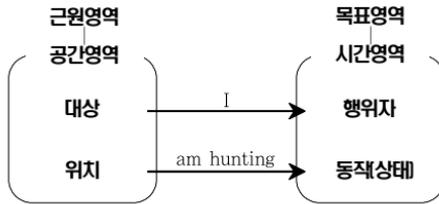
1) 본 소절의 내용은 존재동사의 은유에 대한 해석은 崔圭鉢·鄭池秀(2007)의 논의 일부를 보완하고 확장한 것이다.

- (6) a. Harry's in trouble.
 대상 위치(상태)
 b. Harry has trouble.
 소유자 소유물(속성)

또한 [상태는 위치] 은유와 짝을 이루는 것으로는 [속성은 소유물 (Attributions Are Possessions)] 은유가 있다. 이 은유는 [대상 사건-구조 은유(The Object Event-Structure Metaphor)] 중의 한 가지이다. 여기서 속성은 소유의 대상으로 개념화 된다. 이러한 [속성은 소유물]은유는 (6b)에 해당한다.

영어의 진행상 형식은 이 중 [상태는 위치] 은유로 설명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그림1> 'I am hunting'에 적용된 은유의 사상관계



2.2 '在'와 '着'

앞서 제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在'는 일반적 진행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영어의 진행상 구문과 동일한 은유 기제로 의미 변화를 설명할 수 있으나 '着'는 조금 복잡한 특징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지속상 표지로 불리는 '着zhe'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는데 하나는 예문(5c)처럼 결과적 상태의 지속을 나타

내는 것(‘着₁’)이며, 또 하나는 예문(5b)처럼 동태적 과정의 지속을 나타내는 것(‘着₂’)이다.

조경환(2010)은 현대중국어의 상 표지의 주관성에 대한 논의에서 결과적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着₁’이 동태적 과정 지속을 나타내는 ‘着₂’보다 낮은 주관성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문법화 과정에서 ‘부착’ 의미의 동사 ‘着zhuó, zháo’는 부착 의미의 동사와 결합하여 결과 상태 지속 의미를 드러내다가 일반화를 통해 점차 부착 의미가 없는 동사와 결합하게 되면서 지속 의미가 드러나는 동태적 과정 지속 의미를 취하게 되었다. 따라서 낮은 문법화 단계에 있는 ‘着₁’이 더 높은 문법화 단계의 ‘着₂’보다 주관성도 낮고 결합 가능한 동사의 범위도 좁은 것이다.

중국어에는 또 하나의 미완료상 표지 ‘在’가 있는데, ‘着₂’와 마찬가지로 동태적 과정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된다. 상 표지 ‘在’는 출현 시기가 ‘着₂’보다 늦다. 張亞軍(2002)에 따르면 <표1>에서와 같이 ‘在’가 단독으로 진행 의미를 나타내는 현상은 明清 이전 시기 매우 드물었으며, 초기 현대 중국어에서도 사용 빈도가 매우 낮았다.

<표1> 冰心的 작품에 사용된 在-VP

	1권 (1919-1922)	2권 (1923-1931)	3권 (1932-1949)	4권 (1958-1961)
在-VP	1	46	85	260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在’가 진행상 표지의 지위를 얻게 된 것은 현대중국어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在’ 뒤에 지시성이 없는 장소지시대명사가 출현하는 ‘在+這兒/那兒+VP’ 형식이 현대중국어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²⁾은 진행상 ‘在’의 문법화가 아직도 진행 중임을 말해준다.

2) 呂叔湘(1981:574)은 ‘在這裡’, ‘在那裡’ 등 장소 의미 때로는 두드러지지 않아서 주로 진

‘在’의 문법화 과정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성과는 그리 많지 않은데, 의미 없는 지시대명사가 ‘在’와 ‘VP’ 사이에 출현하는 상황을 근거로 하여 대체로 여러 학자들이 ‘在’의 문법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7) 在+장소+VP > 在+VP

‘VP’가 장소를 대체하게 된 것은 앞서 영어 진행상의 문법화와 마찬가지로 [상태는 위치] 은유로 설명할 수 있다.

高增霞(2005)는 ‘在’의 진행상 용법이 이렇게 늦게 나타난 것이 ‘在’의 기능 확장 및 ‘V+着+L(장소명사구)’의 소실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在+L’은 동사 앞이나 뒤에 모두 출현 가능한데, 그 중 동사 뒤 위치에서 정태지속을 나타내는 기능은 魏晉南北朝 시기에 출현하였으며 ‘V着L’과 함께 사용되었는데, 宋元 이후로 ‘V着L’의 대부분은 ‘V在L’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또한 高增霞는 장소명사구가 출현하지 않는 ‘V着’용법의 성행으로 인해 반사적으로 ‘V在L’이 ‘V着L’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 이외에 ‘着’ 자체의 장소 표시 기능보다는 그 앞에 출현하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목표에 도달함을 나타내는 기능이 더 두드러졌다는 점 역시 ‘V着L’이 도태하는 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문법화 시기로 볼 때 ‘着’가 ‘在’보다 앞서며, ‘着’가 이미 동태적 과정 지속의 기능을 이미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在’의 문법화 속도가 ‘着’를 추월한 된 원인은 무엇일까? 필자는 ‘着’가 다른 언어의 미완료상 표지들처럼 비록 위치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기는 하나 ‘부착’ 사건의

행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였다.

(a) 人身上時時刻刻在那裡消耗水。

사람의 몸은 시시각각 물을 소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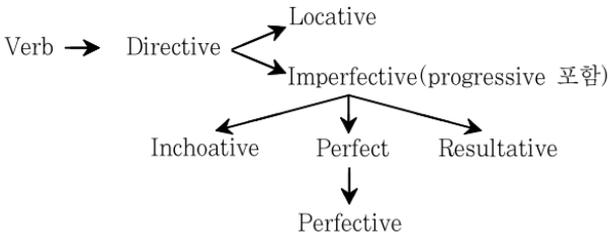
(b) 我在這裡想明天的工作怎麼安排。

나는 내일 업무를 어떻게 계획할 지를 생각하는 중이다.

결과 위치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在’보다 의미의 일반성이 낮은데다가 전문적 진행상 표지로 가기 위해서는 더 복잡한 문법화 과정을 필요로 하므로, 경쟁 과정에서 ‘在’에 밀려 전형적 진행상 표지의 자리마저 내어주고 낮은 문법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본다. 이 모든 현상의 원인은 ‘在’가 전형적 존재동사에 속하며, ‘着’는 기본적으로 이동동사에 속하고, 위치 의미는 이동사건을 이루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在’는 상태동사이며, 시작점이나 결과상태를 가지지 않는 비종결(atelic)동사이다. 반면 ‘着’는 시작점, 과정, 종결점, 결과상태를 가지는 종결(teleic)동사이다.³⁾ 특히 ‘着’는 의미상 결과상태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문법화 과정에서도 완료상과 미완료상의 두 가지 의미와 기능이 동시에 나타났다. 결과상태는 사건의 종결로 나타난 것이지만 상태 그 자체는 비종결적(atelic) 특성을 가지며 지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2> ZHE의 상적 의미와 관련된 역사적 경로(Sun 1998)



이러한 상적 겹침 현상(aspectual overlap)은 다른 아닌 동사 ‘着’ 자체의 상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지속성과 종결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이 동사는

3) 동사로서의 ‘着’는 부착이라는 이동사건을 나타내며, 시작점, 경로, 종점(부착장소)을 가지므로 종결성을 가지게 된다.

상이한 여러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미 조건을 갖추고 있는 반면 ‘在’는 상태동사로서 오로지 지속성만을 가지고 있다. ‘在’의 의미적 전문성은 ‘在’가 원형적 진행상 표지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이다.

3. 이동동사

중국어의 또 다른 상 표지 ‘過’와 ‘起來’는 모두 이동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에서 문법화 된 것이다. 이동을 나타내는 근원어가 문법화를 거쳐 상 표지 혹은 시제표지가 되는 것 역시 범언어적인 현상이다. 본 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동동사들 가운데 왜 일부만이 상 표지가 될 수 있었는지, 이동동사로부터 문법화 된 상 표지들 사이에 존재하는 문법화 정도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살펴보겠다.

3.1 ‘過’와 ‘過來’, ‘過去’

‘지나가다’라는 의미의 이동동사 ‘過’는 ‘V過’의 형태로 방향보어를 구성할 수 있으며, 방향보어(directional verbal complement, 이하 DVC)에서 결과보어(resultative verbal complement, 이하 RVC), 그리고 PVC의 과정을 거쳐 상 표지로 문법화되었다.

또한 ‘過’는 ‘來/去’와 결합하여 복합방향동사 ‘過來’, ‘過去’를 구성하며 ‘V過來/過去’의 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은유를 통한 의미 변화는 발생하였지만, 상징 기능을 획득하지는 못하였다. ‘過來’, ‘過去’는 경험상 표지와 동일 기원을 가진 ‘過’와 ‘來/去’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여전히 결과보어 단계에만 머

무르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바로 이동의 현저성, 이동의 객관성, 이동의 대칭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규발·정지수(2009)에서는 이동동사 ‘過’의 문법화 과정을 개념은유로 설명하였다. 언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은유의 하나로 [시간의 경과는 이동 TIME PASSING IS MOTION]이라는 은유가 존재하는데, ‘過’의 의미적 추상화 역시 이 은유로 설명할 수 있다. ‘過’가 완성, 완결 의미를 나타내는 PVC를 거쳐 더욱 추상적인 경험상 표지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이동성이 약화되는 주관화 과정을 거쳤다고 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탄도체와 지표의 역전 현상이다. ‘過’가 탄도체와 지표 역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탄도체가 되는 이동체와 지표가 되는 고정물을 정하는 데 있어 명확한 기준, 즉 직시적 참조점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過來’, ‘過去’에서는 ‘來/去’가 바로 ‘過’가 나타내는 이동의 직시적 참조점을 제공하는데, 공간적·물리적 영역의 객관이동에서 심리적·추상적 영역의 주관이동으로의 의미 변화가 일어나 다음과 같이 추상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8) a. 腐敗的朝政使他逐漸清醒過來

부패한 조정이 그로 하여금 점차 정신을 차리도록 하였다.

b. 她隨即暈過去了

그녀는 바로 혼절했다.

하지만 ‘過來’, ‘過去’는 동사가 나타내는 상태로의 변화만 나타낼 수 있을 뿐, 과정의 시작·지속·종결 의미는 획득하지 못하여 상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 ‘過’와 달리 이 두 가지 보어가 더 이상 추상화되지 못한 것은 ‘來/去’라는 직시적 참조점이 대칭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 (9) a. 將史鐵生的作品——細讀過來，總有那麼幾個詞語特別地引人注目
 史鐵生的 작품을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 오다보면, 언제나 그 몇 개의 단
 어들이 특히 주목을 끈다.
- b. 他一本連一本本地拜讀過去
 그는 한 권 한 권씩 (삼가) 읽어 갔다.

위의 예문 (9)에서 ‘V過來’, ‘V過去’가 나타내는 상황은 모두 과거에 속하며 주관화자를 기준으로 하여 ‘來/過’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 ‘V過’가 완결이나 완성을 나타내는 것과 달리 이들이 완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過’가 비록 명확한 직시적 참조점은 없으나 “어떠한 동작을 지나감” > “어떠한 동작이 완결됨”이라는 은유적 유추를 통해 상적 의미를 획득하는 반면에, ‘V過來’, ‘V過去’의 ‘過’는 단지 ‘來/去’의 경로만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며 완결의 의미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3.2 ‘起來’와 ‘起去’

일명 기시상(inchoative) 표지 혹은 시작상(inceptive) 표지로 불리는 ‘起來’는 ‘일어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부터 문법화 된 것이다. ‘起來’의 상적 의미의 핵심은 ‘시작’이며, 동사의 부류에 따라 ‘완성’, ‘결과’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신경미 2009) 그러나 다른 관점상 표지들이 서로 결합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달리 ‘起來’는 관점상 표지 ‘了’와 함께 쓰일 수 있어서, 여전히 단계상(phasal aspect)의 단계에 머무르고 아직 관점상 표지로 문법화되지는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

동사 ‘起來’는 ‘起’와 ‘來’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동사 ‘起’만으로도

4) 陳前瑞(2008)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起來’를 관점상이 아닌 ‘階段體’(즉 본고의 단계상)에 포함시켰다.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상 표지 ‘起來’와 마찬가지로 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보어로 사용된다.

(10) 早在1873年, 生活在橫濱的中國人就建起了一座關帝廟。

일찍이 1873년에, 요코하마에 살던 중국인들이 관제묘를 하나 지었다.

(CCL 코퍼스)

원래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는 동사인 중국어의 ‘起’, 한국어의 ‘일어나다’, 영어의 ‘arise’는 모두 ‘발생하다’라는 의미도 가지는데, 이를 통해 ‘起’나 ‘起來’가 기시상 표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의미적 조건은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을 수 있다. 또한 ‘來’가 부가되지 않은 ‘起’ 자체도 기시상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은 ‘來’의 기능이 공간적 참조점 제공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준다.

최규발(2008)에서도 언급하였듯이 ‘起’와 ‘來’의 초기 결합 당시 이미 ‘來’는 공간 참조점이 아닌 심리적 참조점을 제공하고 있다. ‘起’의 ‘발생’, ‘시작’의 의미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여 화자의 관찰범위 내에 들어오게 됨을 의미하고, 이로 부터 ‘기시상’ 의미가 나오게 된 것이다. 반면 ‘起去’는 본래 ‘起身而去’의 의미를 나타내어 하나의 이동사건이 아니라 두 개의 연속적 사건을 나타내는데, ‘起來’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起’의 ‘발생’, ‘시작’의 의미와 참조점으로 부터 멀어짐을 의미하는 ‘去’가 상적인 조합을 이루지 못하면서 결국 도태되고 말았다.(최규발 2008 참조)

아울러 최규발(2008)에서는 ‘起來’와 ‘過來’의 비교를 통해 이동의 현저성이 낮을수록 주관성이 높아지고, 문법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過來’의 경우 ‘過去’의 형식과 대칭을 이루며 사용면에 있어서도 평행을 이루고 있다. ‘下來’, ‘下去’ 역시 지속 의미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시간의 흐름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의미가 더 두드러지며, 동사 자체에 지속의 의미가 있는 경우에만

국한되어 사용되므로 상 표지로 문법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통해서도 'V來/去' 형식이 상 표지로 문법화되기 위해서는 이동의 현저성이 낮아야 하고, 주관적 이동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3 '過₂'와 '起來'

다음으로 '過'와 '起來'를 중심으로 전자의 경우 관점상 표지가 되었으나 후자는 PVC의 층위에만 머무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자. 이 둘은 모두 상 표지이지만, '過'는 한 단계 더 문법화 된 관점상 표지이고, '起來'는 단계상 표지이다. 복합방향동사들이 방향보어 수준에 머무르고 더 이상 문법화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來/去'의 대칭성과 이동의 현저성에 기인한다는 점을 앞서 지적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起來'는 자유로우므로 다른 복합방향동사와 달리 PVC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過'가 '완결' 의미를 벗어나 '경험'이라는 고도로 추상화된 의미를 갖게 되어 완결과 관련이 없는 일부 상태동사와의 결합이 가능해질 정도로 사용 범위의 일반화를 이룬 것과 달리 '起來'는 그 상적 의미가 여전히 그것과 결합하는 동사의 상적 자질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최규발·정지수(2009)에서는 은유라는 기제를 중심으로 하여 '過'의 문법화 과정, 상적 의미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그 중 핵심적인 것이 바로 탄도체와 지표의 전환이다. 탄도체와 지표의 전환은 주관적 이동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경험상 표지 '過'는 탄도체와 지표 전환을 통해 사용 범위의 일반화를 이룰 수 있었다.

- (11) a. 這個地方曾經承受過中國的兩度耻辱。
이 장소는 과거 중국의 두 차례 치욕을 견뎌낸 적이 있다.
b. 那井裡死過三個人。

저 우물에서 세 사람이 죽은 적이 있다.

(CCL 코퍼스)

‘過’의 의미는 본유적으로 이동과 관련이 있고, 공간적 이동이 시간적 이동으로 사상되면서 경험문의 전형적 주어는 시간 상의 경험자가 될 수 있는 유정성 NP의 특성을 지닌다. 하지만 위의 예문 (11)의 경우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체가 주어로 출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탄도체와 지표의 전환이다.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부류의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11)의 두 문장은 ‘過’가 지닌 고도의 추상적 문법 기능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過’는 문법화 중간 단계에서 PVC ‘-過’ 용법을 거쳐 경험상 표지 ‘-過’가 되었다. PVC ‘-過’는 상황 내부의 일부분에 대한 윤곽부여 역할이 가능하지만, 경험상 표지 ‘-過’는 상황 내부에 대한 윤곽부여 기능이 없으며, 사건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 즉 추상적인 ‘경험’ 의미만을 드러낸다.

‘起來’의 경우 단계상 표지로서 상황 내부의 시작 구간에 윤곽부여하는 핵심 기능을 갖는다. 이 때 ‘起來’는 ‘시작’의 의미를 가진다. 이밖에도 성취동사와 결합할 경우 완성의 의미를 가지는데, ‘起來’의 이 두 가지 의미는 바로 ‘起來’가 하나의 방향으로 발전해가는데 어려움을 준다. 완성의 의미는 완결(completion), 완료(perfect) 등을 나타내는 표지 혹은 완료상(perfective) 표지로 나아가는 조건이며, 시작상은 미완료상의 일종이다. 따라서 낮은 문법화 단계에 머무르는 것은 ‘着’가 이중적 속성을 갖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4. 상 표지로의 문법화 조건

상 표지로 가는 문법화 과정에는 몇 개의 일정한 단계와 경로가 있다. 문법

화 연구자들은 이러한 과정과 경로에 규칙성을 찾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

가령 문법화의 보편경로 가설(Universal Path Hypothesis)에서는 문법화의 의미변화는 결국 범언어적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소수의 의미군에 제한된다고 본다(이성하 1998:194). 그 예로 'finish'의 의미를 가진 동사나 방향 동사들은 먼저 완결상(completive) 표지로 변한 다음 선시성 표지(anterior), 완료상 표지(perfective)를 거쳐 단순과거(simple past) 표지로 발전한다고 한다(이성하 1998:195).

또한 문법표지의 어원이 문법화 방향과 문법소의 결과적 문법 의미를 결정짓는다는 어원결정가설(Source Determination Hypothesis)도 있으며,(이성하 1998:189) 문법화의 어원어는 의미적 일반성을 가져야 하며 일반화 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상대적으로 문법화되기 쉬운 조건을 가진다고 보는 의미적 일반성(semantic generality) 가설도 있다(안규동 2005:160).

이러한 여러 가설에 비추어 볼 때 중국어의 '了', '過', '在'는 의미의 보편성 측면에서 문법화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그 발전과정 역시 위의 가설에 부합한다.

앞서 존재동사와 이동동사를 각각의 의미범주 안에서 내부적으로 비교해보았는데, 이제 '了', '過', '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법화정도가 낮은 또 다른 관점상 표지 '着'나 단계상 표지 '起來', 그리고 기타 보어성분들은 왜 위의 세 문법소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중국어의 상 표지들은 'RVC>PVC>관점상 표지'의 과정을 거쳐 문법화가 이루어지는데, 먼저 RVC에서 PVC로 나아가는 조건을 살펴보자.

앞서 살펴본 '過來', '過去' 및 '下來', '下去'와 같은 복합방향동사로 구성된 보어들 가운데 유일하게 '起來'만이 단계를 부호화할 수 있다. 나머지는 주요동사가 나타내는 상태의 심리적, 시간적 결과상태만을 나타낼 뿐이다. '下來', '下去'

역시 지속구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 의미는 이들과 결합하는 동사 자체에 내포되어 있으며, ‘下’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來/去’는 직시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향성을 갖기는 하지만, 이는 단계상의 선형성 특징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過來’, ‘過去’, ‘下來’, ‘下去’는 동사가 나타내는 과정의 시작·지속·종결과 같은 단계(phase) 의미가 아니라 동사의 결과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처럼 보어가 결과상태를 나타내면 RVC에서 머무르고, 과정 내부의 어느 한 단계를 지향하면 PVC로 나아갈 조건을 갖추게 된다. PVC로의 진화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로가 있다.

(12) PVC의 조건:

- a. 비종결 의미의 활동동사에 보어가 부가되어 단계성 나타내는 경우
吃完, 吃過(PVC)
- b. 종결동사에 보어가 부가되어 단계성 나타내는 경우
站起來, 站着

특히 (12a)에서 보듯이 ‘吃飽(RVC)’와 같이 동사 뒤에 부가된 보어가 동작의 결과로 인해 출현한 새로운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과정의 내부 단계성이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은 RVC와 PVC의 중요한 의미적 차이를 보여주며, RVC의 결과성과 PVC의 종결성⁵⁾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그 다음으로 PVC에서 관점상 표지로 나아가는 조건을 살펴보자.

김중도(2002)는 상·시제·양상이 갖는 고정화 서술(grounding predication)로서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시제와 양상이 실례화(instantiation) 영역에서 위치잡기 역할을 하는 반면 상은 양화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아래 예를 보자.

5) 물론 이는 모든 PVC가 종결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PVC 중에서 종결구간을 지향하는 부류에만 여기에 해당된다.

- (12) a. He built a mansion. 그는 저택을 지었다.
 b. He was building a mansion. 그는 저택을 짓고 있었다.
 (김종도 2002:233)

(12)에서 두 문장은 시제가 동일하며 상적 관점만 다르다. (12a)는 사건의 전체적 국면을 조망하고 있고, (12b)는 사건 내부의 일부분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관점에 있어 양적인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계상과 관점상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그림3> 단계상(phasal aspect)의 구성



위의 <그림3>에서는 단일 상황의 내부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단계상은 이 상황의 전체 과정을 쪼개어 시작-지속-종결 등 여러 단계로 나누며, 내부의 여러 발전 단계 중 하나의 구간에 윤곽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각각의 단계는 순서지위져 있어서 선형적이며, 또한 개별 구간은 양적인 특징을 갖는다.

김종도(2002)의 설명처럼 관점상 역시 양적인 특징을 가지지만, 단계상과 차이가 있어서 전체 과정을 여러 개의 단계로 나누지 않으며, 윤곽부여 기능이 없다. 단지 전체 상황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여줄 것인가 내부의 일부만 보여줄 것인가의 차이만이 존재한다. 또한 단계상은 선형적 특징을 가지는데 반해 관점상은 상황 내부의 선후관계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비선형적이다. 관점상의 시간성(temporality) 특징은 내적 구성 순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황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단계상의 선형성과는 다르다고 하겠다.

5. 맺음말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우리는 중국어의 존재동사와 이동동사에서 다음과 같은 상 표지로의 문법화 조건을 귀납해낼 수 있었다.

- 1) 의미의 일반성과 전문성
- 2) 존재동사의 경우:
비종결 동사(atelic verb), 지속성
- 3) 이동동사의 경우:
이동의 낮은 현저성, 비대칭성, 주관성
- 4) 미완료상의 경우:
비종결 동사, 상태 지속성
- 5) 완료상의 경우:
종결성

가장 중요한 조건은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상 표지들의 일반적 의미 속성이며, 의미의 일반성과 더불어 전문성도 중요한 조건이다. 다음으로 존재동사 내부에서의 상 표지 문법화 조건을 살펴보면, 존재동사는 미완료상으로 문법화되기 쉬운데, 그 중에서도 비종결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동동사의 경우 이동의 현저성이 낮고 비대칭적 이동을 나타내며, 주관적 이동을 나타낼 수 있어야 상 표지로 문법화되기 쉽다. 또한 상 범주 내에서 미완료상과 완료상은 종결성 유무가 중요한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존재동사와 이동동사에 주로 한정지어 상 표지로의 문법화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중국어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각종 보어 성분들에 대한 개별적 분석을 병행하여 상 현저 언어(aspect prominent language)인 중국어에 왜 서너 개의 관점상 표지만이 존재하는지, 나머지 보어들의 역할

은 통합범주로서의 TAM 내부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 김종도(2002), 《인지문법의 디딤돌》, 박이정.
- 신경미(2010), 《현대중국어 '起來/V起來' 구문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규동(2005), <문법화의 의미일반성 딜레마: 한국어 '자빠지다'를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32집.
-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조경환(2010), <중국어 상의 객관성과 주관성>, 《중국학논총》제27집.
- 최규발(2008), <방향보어의 문법적 의미 '起來'를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24집.
- 崔圭鉢·鄭池秀(2007), <韓漢進行體、持續體對比及其否定>, 이재훈 외(2007), 《中國語言文字論稿》, 올린책상, 95-115.
- 최규발·정지수(2009), <시간 은유와 '過'의 상적 특징>, 《중국언어연구》 제28집.
- 최규발·정지수(2010), <현대중국어 사건의 고정화와 상(aspect)>, 《중국학논총》 제28집.
- 최규발·조경환(2010), <중국어의 PVC에 관한 소고>, 《중국어문논총》 제45집.
- 陳前瑞(2008), 《漢語體貌研究的類型學視野》, 商務印書館.
- 高增霞(2005), <處所動詞、處所介詞和未完成體標記-體標記“在”和“着”語法化的類型學研究>,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 2005年第4期.
- 蔣紹愚(2005), 《近代漢語研究概要》, 北京大學出版社.
- 羅自群(1998), <論“在N處+VP”和“在+VP”的關係>, 《語言研究》.
- 呂叔湘 主編(1981),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
- 梅祖麟(1999), <先秦兩漢的一種完成貌句式>, 《中國語文》 1999年第3期.
- 張亞軍(2002), <時間副詞正、'正在'、'在'及其虛化過程考察>, 《上海師範大學學報》 第30卷2002年第1期.
- Lakoff, G. & Johnson, M.(1999).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임지룡·윤희수·노양진·나익주 역(2002), 《몸의 철학》, 박이정.

Sun, Chaofen(1998). "Aspectual Categories that Overlap: A historical and Dialectal Perspective of the Chinese ZHE",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vol. 7, no. 2, 153-174.

Vlach, Frank(1981). "The Semantics of the Progressive", in P. J. Tedeschi and A. E. Zaene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 14. Tense and Aspect*, pp. 271-292. New York: Academic Press.

< 中文提要 >

從跨語言角度看，漢語屬於體貌突顯性語言，但漢語中高度語法化的視點體標記僅有三、四個而已。除了高度語法化的視點體標記以外，漢語也有一些語法化程度相對較低的諸多補語成份在體貌範疇中起着很大的作用。本論文主要以存在動詞、位移動詞為中心，試析漢語體貌標記的語法化條件。根據普遍性假設，很多語言中主要功能詞(functional word)來自於語義上具有普遍性的一些詞語，如完成貌標記大部份來源於表完成或位移的詞語，進行體標記來源於存在動詞等等。漢語的情況也不例外。漢語的體標記“在”、“着”來源於存在動詞，“了”來源於完成動詞，“過”、“起來”來源於有關位移的動詞。

分析結果發現漢語的未完成體標記“在”、“着”的詞彙來源都與“位置”義有關，但它們在[±telic]特徵方面有所差異，並且“着”在語義的專門性方面遠遠不及於“在”，因此“着”的語法化等級也低於“在”。在位移動詞方面位移的凸顯性、對稱性、客觀性阻礙趨向補語的進一步語法化，因此跟“過來、過去、下來、下去”比較起來，“起來”相對容易語法化為體標記。最後本文還歸納出從結果補語到動相補語，從動相補語到視點體標記的語法化條件。

關鍵詞：體貌標記，階段體，存在動詞，位移動詞，語法化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0.12.31	2011.2.10	2011.2.12	2011.2.15	2011.2.28